

사미의제 10월 전면 실시

조계종 사미(니) 위계확립 5대 중무방침 발표

의제 미착용자 제도적 제재조치

작년 시행령 공포이후 학인들 반대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교육원장 일면스님을 비롯 전국 교구본사 주지 및 기본교육기관 학장들은 2일 서울 한국의 집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사미·사미니의제를 10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총무원·교육원의 '사미·사미니 위계 확립을 위한 5대 중무방침'을 종헌증빙령 준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며 △종단의 법통 수호와 승가 위계 질서 확립을 위해 예비승들의 어떠한 집단 행동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이 이같은 5대 중무방침을 결의한 배경은 예비승려인 학인들이 종단과

어른 스님들의 사미(니)의제 시행에 반대하는 등 종단의 위계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2월28일 총무원이 사미(니)의제 시행령을 공포하고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와 전국강원교직자회의, 종무회의 등에서 사미의제 시행을 거듭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미 강원에서 의제 시행을 공개적 반대하는 한편 전국 강원학인연합이 교계 신문을 통해 사미의제 시행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게재, 종단의 방침에 정면 도전하는 인상을 준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분석이다.

특히 일부 강원에서 사미승들이 비구스님들에게 집단행동으로 권위에 도전하는 등 승가위계 질서가 허물어진다. 위계의식 행태가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강원 의제 시행을 "학인들이 무서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사미의제를 강력하게 실시해 위계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학인스님들은 사미(니) 의제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 △학인들이 행하는 모든 의식과 대외활동에서 신도들로부터 수행자로서의 신심과 신뢰 상실 △세속적 권위주의(등급제, 계급제) 조장 등을 들고 있지만, 조계종의 예비승려로서 종단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피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넘어섰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계의 정서다.

학인 스님들도 행자기간만 마치면 '스

님'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버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행자 과정을 마치고 전국의 강원이나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학과, 기초선원 등 기본교육기관에서 4년간의 사미·사미니 과정을 거쳐야만 정식 비구·비구니 스님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주어지는 종단의 법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목사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6~7년의 교육기간이 필요한 것을 보더라도 이는 예비승려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이렇게 중론이다. 청정승가의 당연한 일원이 되기위한 철저한 하심과 인육공부가 절실하다는 것이 원로스님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종단 안팎에서도 지난해 종도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종령이 사문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승중진작을 위해서는 교육과 함께 위계확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종단의 확고한 의지와 교직자의 적극적 찬성 등을 배경으로 발표된 이번 5대 중무방침은 반드시 시행토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opia.com)

회의록 2일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

고산스님 본사에 '성역화 화주' 당부 교구 호법국장 신분증 발급 역할강화 수행환경 보존 대정부 결의문 채택

▲조계사 성역화사업

2일 열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의 첫 안건은 총본사 조계사 성역화 사업 추진계획이었다. 총무원이 조계사 성역화 사업에 종도들이 참여하라는 8월 28일자 종정 해암스님의 교시를 발표했다.

해암스님은 "호터진 종풍을 수습하여 진작코자 하니 모든 종도와 사부대중은 수회동참하여 불법을 만고에 빛날 대가람의 진면목을 현시(顯示)하라"고 교시했다.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조계사 성역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조계사를 성역화한다면 모든 종도와 신도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뜻을 합쳐 조계종의 위상을 높이는 불사를 원만히 성취하자"고 말했다.

고산스님은 또 "5백만명의 신도가 나서면 700~800억원이 조성될 수 있다"며 화주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호법국장 신분증 발급

본사주지들은 또 교구 호법국장 신분증을 발급해 교구 호법국의 역할을 증대하고 호법업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분증은 본사주지사님이 임명한 호법국장에 대해 호법부에서 신원조회 후 본사주지사 명의로 총무원에서 발급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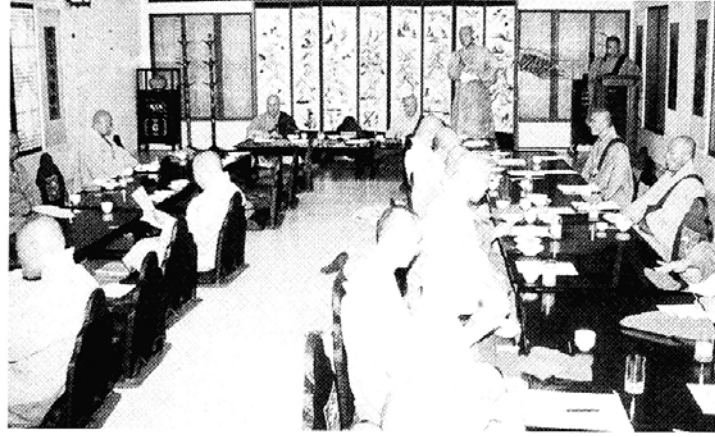
호법부장 종고스님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종헌 증법의 수호와 승가의 기풍진작을 통하여 승단의 화합과 종단의 안정을 위해 교구호법국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후 교구호법국에 조사권 부여, 종단 호법부와 교구호법국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교구 내 사건에 대해 교구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수행환경 보존 결의문

이날 회의에서는 또 수행환경 보존 등 김대중대통령 선거공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도 채택했다.

총무원과 본사주지들은 결의문을 통해 "수행환경과 성보문화재 보존을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정부당국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사찰환경 보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마련 △성보문화재 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강화와 근본적인 대책 수립 △국립공원입장료의 즉각 폐지 등 3개항을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애초 김대중대통령의 불교중앙박물관 건립 공약 이행, 민영교도소 설치를 중단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으나, 더 연구기로 하고 삭제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교육원장 일면스님, 본사주지 및 기본교육기관 학장들은 2일 한국의집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사미(니) 위계 확립을 위한 5대 중무방침을 결의했다.

- 사미(니) 위계확립을 위한 5대 중무방침
1. 전국 본·말사 및 승가기본교육기관은 10월1일까지 사미·사미니(식차미니) 수계자에게 사미(니)의제를 착용케 하고 결과를 종단에 보고할 것
 2. 각 교육기관에서 사미(니) 의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종단 예산 지원 중단
 3. 의제 미착용 예비승이 총무원·교육원 합동감찰반에 적발시 1차 1년, 2차 2년 유급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구족제 수지 자격을 제한
 3. 사미의제에 관한 중무방침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주동하는 예비승은 종헌·종법령에 따라 징계조치
 4. 승가대학 학인의 무단전학을 금지하며, 전학은 학장의 허락과 교육원의 승인을 받을 것.

8월29일은 간다라미술 서울 전시가 끝나는 날이었다.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10대에서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연령층은 다양했다.

아이들 손잡고 나온 가족관람이 많았고, 나이 지긋한 불자들이 2~3명 또는 4~5명씩 함께 입장했다. 청소년들도 그룹지어왔다. 외국인 스님도 있었고 수녀도 있었고 전 직장관도 보였다. 사암 연합의 버스도 출동했다. 모두들 전사를 놓칠 세라 열일 제쳐놓고 나온 모습이었다.

전시장에는 감동이 흘렀다. 불상이 없었던 무불상 시대를 지나 최초로 불상을 탄생시킨 간다라 미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전시작품들은 주로 기원후 1세기에서 4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조성했다. 기원후 1세기, 경전의 제4결집과 대승불교가 탄생한 시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간다라미술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있다. 정면을 보고 있는 예배불상이 아닌 작품들은 초기불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이야기 해서 서사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부

처님을 친견하고 설법을 듣는듯 작품에 빨려들었다. 어머니 마야부인과 이모, 마부 찬타카, 이복동생 난다 등 부처님 주변의 인물들도 만났다.

어느 날 부처님은 우루벨라에 들러 배화교도이던 가섭 3형제와 그 무리를 교화하였다. 그때 불의 사담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독의 불을 밝는 코브라를 빛으로 제도한 부처님의 모습이 불일상과 부조 '독통이 든 발우를 보이는 붓다'로 표현됐다. 불일상의 두 손은 훼손됐지만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약간 아래를 내려다

보는 부처님 표정은 그대로 자비였다. 얼굴과 몸을 약간 오른쪽으로 향하고 오른손에 발우를 든 '아쇼카 施土'는 공양의 공덕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시는 2개월 동안 7만여명이 관람했고, 부산전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의 이야기를 조형화한 1900~1600년전의 작품들이 우리에게 안겨준 그 감동의 교훈은 무엇일까. 문화의 세기가 목전에 와 있다. 이제 불사의 양태가 달라져야 한다. 간다라미술처럼 천 년 2천년 이후에도 감동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불사를 하자.

최정희(본지 편집국장)

목어

간다라 미술전

통도사 어떻게 돼가나

총무원 임명 현문주지직대 출입저지 문수사 관룡사 해남사 정화측 점유 '월하스님 모시기'엔 양측 이견없어

지로 임명한 도각 정인 성본스님이 점유하고 있다.

총무소는 직원들이 출근하는 등 겉으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번 한안거 결재에 방부를 냈던 수좌들에 중간에 모두 떠나는 등 사실상 선원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수좌들은 지난 7월 6일 월하스님이 수좌들에게 산중총회를 열려던 현문스님 일행의 출입을 막아달라고 하자 선원을 떠나기도 했다.

통도사의 한 스님은 "결계 중 수좌들

이 선원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 총림으로서의 통도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산철결재라는 명분으로 지난 해 조계종사대에 참여했던 스님들 20여명이 통도사 선원에 들어와 있다"고 전했다.

월하스님이 현문스님을 상대로 1일 울산지원에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현문스님은 "통도사 대중들은 월하스

님의 유아독존적 사찰 운영에 대해 내심 반대하고 있으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통도사 정상화를 위해 대중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문스님은 또 "우리는 월하스님을 문중의 어른으로 모실 것이지만, 통도사가 평화개혁회의의 본거지가 돼서는 안된다"며 평화개혁회의의 스님들을 통도사에 머물게 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월하스님측의 통도사님도 "결국 통도사는 한 집안이므로 월하스님을 중심으로 한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월하스님 모시기'에는 양측이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문제해결의 살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통도사 문제해결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놓고 있는 꼴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불국정토 구현 기원

제2회 관정수기 대법회

관정경에 관정이란 왕이 즉위하거나 전법(傳法) 수계(受戒) 할 때 또는 수도자(修道者)가 일정한 계위(階位)에 오를 때 사해(동, 서, 남, 북의 바다)의 물을 길어다 수계자의 정수리에 부어 계위를 인증하여 주는 불사입니다.

관정수기를 받는 사람은 미래에 전륜성왕이나 대아라한 대보살 종래에는 부처를 이룰 큰 인연 공덕을 짓게 됨으로 현재에는 모든 고난과 질병에서 벗어나며, 복덕이 구축하여 빈곤하지 아니하며, 뜻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을 원만히 성취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주 희유하고 성스러운 불사이며, 일생중 단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라 모든 불자는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대덕문화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시 1999년 9월7일(음7월28일) 11시

주최 제2회 관정수기 대법회추진위원회

문의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 T.02)3216-0165

후원 :
한국불교중앙협의회 · 대한불교중앙협의회 · 불교TV · 정주불교방송국
현대불교신문사 · 한국불교노인복지회 · 삼론법보신문사

◎ 제2회 관정수기 대법회 임원

대법주	이대산 대종사 (대한불교 종정 협의회장)
관정증사	전석봉 대화상, 진지마 대화상, 신각화 대화상, 박광봉 대화상, 김혜승 대화상, 이신수 대화상, 사해광 대화상, 김법진 대화상, 최대운 대화상, 류정봉 대화상, 김법광 대화상, 노우담 대화상, 이만해 대화상, 이정수 대화상, 김오봉 대화상, 임인봉 대화상, 조법진 대화상, 이종덕 대화상, 최상순 대화상, 서해공 대화상, 이용석 대화상
마정증사	
연비법사	

◎ 고문·자문위원

고문	강영순(향운), 이의동(원인), 배사옥(석왕), 도월천(대월), 김진오(해운), 윤원주(진여성), 방우순(대명화), 송동수(마명), 박현주(도안), 이연옥(대도심), 김점주(법정화), 이기남(설운), 신정철(정월), 강숙조(지화), 정성기(정각)
자문위원	장정배(혜일), 최천안(보현), 이분임(지인), 이지형(동림), 이종진(대원심), 성영옥(일심화), 구순옥(보덕행), 류기복(원화), 김기일(공덕심), 신순자(마하), 한상옥(선혜), 박순애(대정심), 김선조(법화), 김영숙(법문화), 강선구(어숙순), 박명자

◎ 대회본부

대회장 이혜공 스님 (해명정사 회주)

부대회장 채법원 스님 (원진암 주지)

봉행위원회
위원장 김진봉 스님 (연화원 주지)
부위원장 박상준 스님 (천보사 주지)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택봉 스님 (지정암 주지)
부위원장 정법각 스님 (관음사 회주)

준비위원회
위원장 배향담 스님 (동림사 주지)
부위원장 주도경 스님 (무량사 주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스님 (보림사 주지)
부위원장 조지경 스님 (천용사 주지)

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정봉 스님 (옥예원 원장)
부위원장 김지경 스님 (청곡사 주지)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이혜암 스님 (유학사 주지)
부위원장 허지호 스님 (태고정사주지)

문화홍보위원회
위원장 이자연 스님 (연화사 주지)
부위원장 구분암 스님 (불도사 주지)

법요위원회
위원장 윤지운 스님 (우암정사 법사)
부위원장 서해공 스님 (학암선원 원장)

동원위원회
위원장 이지혜 스님 (용학선원 원장)
부위원장 유지도 스님 (보안사 주지)

호법위원회
위원장 이지광 스님 (삼봉사 주지)
부위원장 류의환 스님 (성불사 주지)

예경위원회
위원장 이지연 스님 (천용사주지)
부위원장 장묘안 스님 (보현사 주지)

지도위원회
위원장 정대안 스님 (안덕사 주지)
부위원장 김달봉 스님 (동자암 주지)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